

## 광주·전남 5일간 최고 349.5mm 비 곳곳 생채기...가뭄은 해갈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잇따라...평균 155mm 이상 비 내리

동북댐 저수율 38%까지 오를 듯...전남 섬 63%까지 상승

광주와 전남지역에 5일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반면 제한급수까지 고려했던 가뭄은 이번 비로 해갈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3시 기준 강수량은 고흥 나로도 349.5mm를 최고로 장흥 관산 348mm, 해남 북일 338mm, 완도 보길도 293mm, 여수 초도 291mm, 광양 백운산 288mm, 광주 관산 175mm, 광주 운암 121.9mm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5mm가 더 내린 뒤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 ◇3일부터 어린이날 연휴 닷새동안 비... 곳곳 생채기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5일동안 최대 349mm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지역에 평균 155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보성 191ha, 순천 189ha, 고흥 138ha 등 총 782ha의 밭·보리·벼 경작지가 빗물에 잠겨 5억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흥을 비롯해 해남, 광양, 장흥, 영광 등 6개지역의 도로가 침수·유실돼 1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기름 유출, 도시가스 공급 중단, 빗물이 지하철 시설로 유입, 정전·지하차도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지난 6일 오전 8시 6분께 광산구 수완지구 풍영정천에 기름띠 현상이 발견돼 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풍영정천 인근 하수구에 묻혀 있는 기름이 비로 인해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같은날 오전 4시30분께 상수도 급수 배관에서 누수된 물이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해 북구 용전마을 280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또 지난 5일 오후 7시4분께 강풍으로 가로수가 전선에 쓰러지면서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772가구가 정전돼 2시간 9분여 만에 복구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42분께 광주지하철 1호선 공항역 대합실에 휴탕물이 들어오면서 1시간10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 ◇제한급수 고려했던 가뭄...단비에 해갈

광주와 전남지역에 5일 동안 평균 155mm 이상의 비가 내려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이 30%대로 회복했다.

빗물이 지속해 유입되면 저수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 심각한 가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7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광주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34.15%, 주암댐 27.95%를 기록했다.

지난 5일 기록했던 각각 21.19%·20.72%의 저수율보다 12.96%, 7.23% 상승했다.

또 효우로 인한 빗물 유입이 수일 동안 지속되면 저수율은 동북댐 기준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섬지역은 저수지 수위가 기존 25%에서 최대 6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 1~2회 물이 공급됐던 완도군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한급수가 해제된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일일 취수량은 15만t으로 현재의 저수량은 200여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며 “여름 장마철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가뭄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전남 완도군은 7일 최근 200mm 넘게 내린 비로 보길도 상수원인 부황제의 저수율이 100%, 만수위를 기록했다. (사진=독자 제공)

## 소아과 의사들 ‘헤어질 결심’...진료전환 교육 521명 신청

소아과 진료과목 전환 움직임 본격화  
 분야별 소수정예반 운영...오픈런 우려

저출산·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코로나 19등 진료량 급감이 맞물리면서 만성질환·미용·통증 클리닉 등 다른 진료과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지원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가 지난달 28일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전교

육 성격의 ‘총론’ 강좌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한 지 이틀 만에 350명이 등록했다.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521명이 신청한 상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내달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총론 강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비만, 하지정맥류, 천식진단과 진료, 당뇨진단과 관리, 고지혈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의 특성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면서 “이날 기자회견도 열 예정으로 몇 명 정도가 소아과 간판을 내릴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총론 강좌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회원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성인 천식진단과 치료의 경우 총론만 잘 들어도 1차 폐기능 검사 기계를 사서 성인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환자들이 몰리는 환절기(3~4월)가 지나 5월 중 회원들의 일반진료 과목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장소 대관에 애를 먹어 6월로 늦춰졌다. 임 회장은 “의사들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총론 강좌를 운영한 후 미용, 당뇨,

고지혈증, 하지정맥류 등 회원들이 희망하는 분야별로 학원처럼 소수 정예반을 운영하는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초음파 검사, 통증 치료 등 실습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영난으로 소아과를 운영하는 동네 병원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진료 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훨씬 낫다고 판단해 폐과 선언까지 가게 됐다. 임 회장은 “의사들의 입장이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한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다른 진료 과목으로 전환을 희망한 소아과 의사들이 트레이닝을 거쳐 다른 환자를 진료

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의사회는 내다보고 있다. 동네 병·의원 소아과가 일반 진료과로 전환된다면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Open-Ren)’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낮은 진료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회장은 “소아는 질환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네 소아과에서 경증 환자를 맡아 대학병원의 진료 과부하를 줄여주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희귀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으로 빨리 보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SUNCHEON**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

#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